군산 유일의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데레사의집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따뜻한 돌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군산 유일의 공동생활가정

데레사의집은 군산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입니다.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생활패턴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빌라형 요양시설

데레사의집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빌라 내부에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일반 가정과 같은 구조와 편안한 공간은 어르신들에게 낯선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의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입소 후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 월명공원 바로 옆,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데레사의집은 군산 월명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들이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품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정원 6명,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

데레사의집은 입소 정원 6명으로 운영됩니다.
소규모 운영을 통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며, 생활지원부터 건강관리, 정서지원까지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항상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 가족 같은 마음

데레사의집은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의 또 다른 집이 되고자 합니다.
입소 전 생활하시던 가정환경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변화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따뜻한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안정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편안한 쉼과 따뜻한 돌봄을 선물하고 싶다면】

**군산 유일의 공동생활가정 데레사의집에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소규모 맞춤 돌봄 ·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 내 집 같은 편안함. 어르신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